



## 한국양회공업협회

### 제35회 시멘트 심포지엄 개최



한국양회공업협회와 세라믹학회의 주최로 지난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제35회 시멘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축사에서 김호일 한국양회공업협회장은 “오늘날 국내 시멘트산업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유가와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원가 증가로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토론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멘트산업이 처해 있는 현안 문제도 함께 고민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시멘트 콘크리트 분야에 종사하는 학계 및 시멘트업계 등 관련업계 인사들의 다양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도로공사 한승환 박사는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 포장의 현안 및 기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으며 군산대 이승헌 교수는 ‘나노기술과 시멘트’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이외에도 ‘시멘트 중크로뮴 상태고찰’, ‘초고강도 콘크리트용 시멘트 결합제의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요인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논문을 발표하며 행사내내 열띤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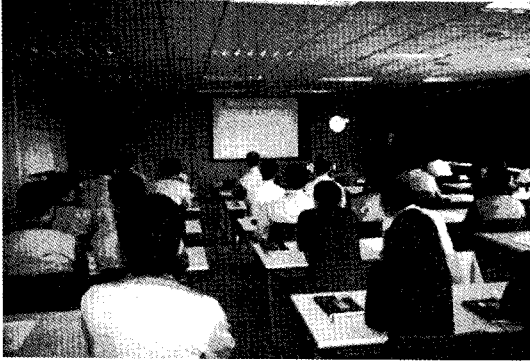
## 동양시멘트(주)

### 2007년 상반기 업무보고회의 개최

동양메이저와 동양시멘트는 지난 7월 15일과 16일 양일간 동양인재개발원에서 현재현 회장과 노영인 부회장을 비롯한 담당임원과 본부장,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상반기 업무보고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재현 회장은 “현재의 시장 상황은 오히려 우리에게 일등이 될 기회를 줄 것이며,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레미콘이 중심이 되어 매출을 증대시키돼 다른 각 분야에서도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의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장의 위기가 엄청난 기회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영인 부회장 역시 “현재 경영환경은 어렵지만 열심히 하면 일등이 가능한 시기”라며 “조직에 끊임없는 도전과제를 부여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며, 당장 어렵다고 개혁을 미루면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해내자”고 당부했다.



## 낭비제로운동 교육 실시



삼척공장은 지난 6월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능률협회 인증원 홍문기 위원을 초청하여 사무기술직 전원을 대상으로 낭비제거운동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부터 삼척공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낭비제로운동의 일환으로, 공장의 비효율적인 업무 및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낭비제거의 기본 개념 이해 및 타사의 사례소개를 통해 낭비제거 중요성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 교육에서는 생산현장의 7대 낭비요소를 발견 하고 이를 개선, 제거하는 방법을 실습과 토의를 통해 배우는 일정이 이어졌다.

## 2008년 제2기 동양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실시

삼척공장은 지난 8월 21일 기술훈련원 강당에서 2008년 제2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수여식은 동양장학재단 이사장이자 삼척공장 공장장인 최경덕 전무를 비롯한 재단임원, 장학생, 학부모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소방방재학과 4학년 박아경 학생을 비롯한 22명의 학생에게 각 80만원, 삼척고등학교 3학년 안재현 학생 등 44명에게 각 30만원을 수여하는 등 총 3천 80만원에 상당하는 장학금이 66명의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동양장학재단은 지금까지 총 4,207명에게 14억여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 삼척공장, 노동조합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참여

지난 6월 20일 삼척공장 노동조합은 설립 55주년을 맞아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삼척시청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삼척시내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쌀(10kg) 174포대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실시되었다. 특히 쌀을 구매할 금액은 조합원들의 자율모금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박재봉 노동조합 위원장은 “나눔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달된 쌀은 삼척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독거노인 가정에 보내졌다.



**쌍용양회공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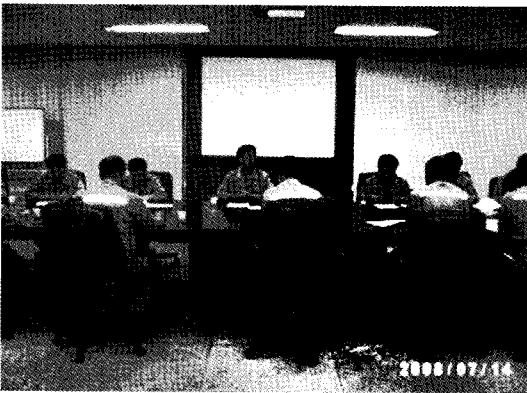
**2년 연속 포틀랜드 시멘트 부문  
KS제품 품질 우수기업으로 선정**

쌍용양회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포틀랜드 시멘트 부문 KS제품 품질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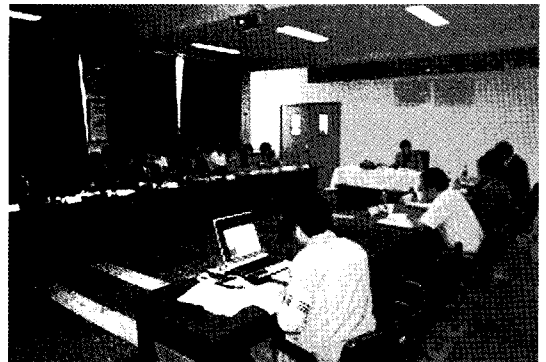
쌍용양회는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 지수연구회가 제품을 구매 또는 이용한 소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과 만족도를 종합한 KS-QEI(한국사용품질지수) 조사에서 2008년 포틀랜드 시멘트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쌍용양회는 업계 최대 규모의 기술연구소와 생산현장을 연계한 연구활동을 통해 1종~5종까지 모든 포틀랜드 시멘트 제품은 물론 다양한 건설현장에 적합한 20여종의 고품질 특수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7배 이상 압축강도가 높은 프리믹스드 시멘트를 개발하는 등 R&D와 품질관리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7월 9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2008 KS-QEI 인증패 수상식이 열렸다.

## 동해공장, 혁신운동 추진위원회 개최



동해공장은 7월 14일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혁신운동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혁신! 도전 5000!'을 달성하기 위한 각 분야별 실천계획 등을 논의했다. 동해공장은 혁신운동 추진위원회를 매월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분야별 회의도 수시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이병욱 환경부 차관, 영월공장 방문



영월공장은 7월 19일 이병욱 환경부 차관의 방문을 받았다. 이병욱 차관은 최근 지역에서 제기되는 시멘트 관련 현안을 듣기 위해 영월공장을 방문했으며, 공장 현황 브리핑 후 직접 생산설비를 돌아봤다.

## IC분임조, 강원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상 수상

동해공장 생산2팀의 IC분임조가 6월 27일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강원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석회석 입도 하향에 따른 원료분쇄기 공정 최적화'란 테마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IC분임조는 9월 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 블우 아동돕기 성금 전달

동해공장은 6월 30일 공장 인근 삼화초등학교를

찾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동해공장이 전달한 성금은 2/4분기 근경협의회에서 무재해 2배수 달성을 기념해 지급받은 안전관리 포상금 중 일부이며, 10명의 초등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됐다.

## 영월공장, 강원도민 달리기 대회 참가

영월공장은 6월 28일 동강에서 열린 강원도민 달리기 대회에 참가했다. 영월공장은 이날 대회에 안광원 공장장을 비롯해 10여명이 5km 건강달리기에 참가해 전원 완주하였으며 이번 강원도민 달리기 대회를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동해공장이 동해시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7월부터 하반기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동해시 보건소 의료진이 매주 수요일 동해공장을 직접 방문해 종업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금연 클리닉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금연교육과 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이후에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이동 금연 클리닉으로 대체 운영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금연 클리닉 운영은 동해 공장을 원만히 운영해 나가는 데 종업원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결과이다.

## '기성' 직급 신설

우수 기능인력이 지속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성 직급을 신설, 운영한다. 기성 승급의 기본 자격은 기장 10호봉 승호일을 1년 이상 경과하고, 회사 관련 기사자격증 이상을 소지했거나, 시멘트 제조기능사 1급 이상을 보유한 종업원이 대상이다. 이로써 기능직은 사원, 주임, 계장, 기장, 기성 등 5단계의 직급으로 운영되게 됐다.



## 한일시멘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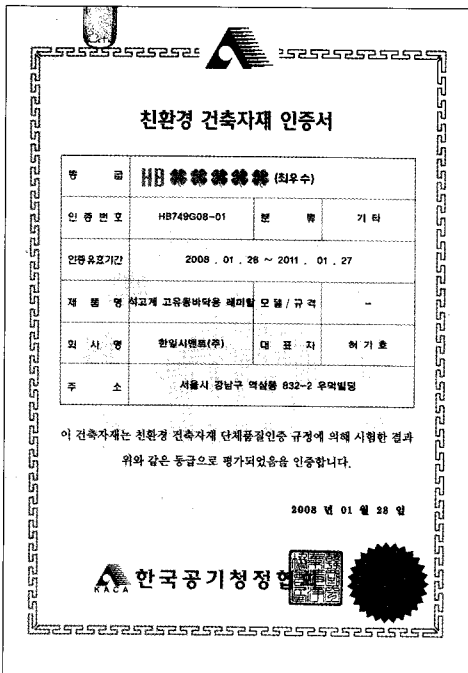
### 공주시와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한일시멘트와 공주시가 지난 8월 26일 '공주 연구/생산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준원 공주시장과 한일시멘트 최병길 부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MOU를 통해 한일시멘트는 "2012년까지 의당면 가산리 일원에 최신 환경안전 장치를 겸비한 레미탈 공장과 레미콘 공장 등 연구/생산 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준원 시장은 "한일시멘트의 투자를 13만 시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공주시가 명실상부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연구 및 생산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병길 부사장은 "이번 의당 가산리 복합 단지를 계획대로 진행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친환경 건축자재인증 최우수등급 획득

실내마감건축자재 제품인 석고계 고유동바닥용 레미탈(RF SL 70G)이 업계 최초로 '친환경건축자재(HB, Healthy Building Material)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한국 공기청정협회는 국내 건축자재 생산업체나 수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새집증후군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의 방출 강도를 평가, 5개 등급으로 나눠 HB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석고계 고유동바닥용 레미탈은 엄선된 석고와 규사를 인체에 무해한 혼화제와 함께 첨단설비에 의해 사전혼합한 제품으로, 석고계 특유의 균열 안정성 효과 및 친환경성을 갖춘 실내 바닥용 고품질 셀프레벨링 제품이다.



## 단양공장, 매포천변에 주민 휴식공간 마련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이 매포읍 평동리 지역 주민



들을 위해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이 휴식공간은 평동리 매포천변에 조성된 것으로 지난 7월 한일시멘트에서 600만원을 들여 원목 야외테이블과 파라솔 등 16세트를 비치했다. 원인상 공장장은 “매포천변은 주택가와 인접해 있고 느티나무가 우거져 여름철 지역 주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즐겨 찾고 있지만 의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휴식공간을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 단양공장 축구팀, 제천시청 누르고 4년 연속 우승

지난 9월 7일 열린 제6회 충북일보 사장기차지직장대항축구대회에서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이 4년 연속 우승했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은 제천시청 B팀을 2대 1로 이기며, 영광의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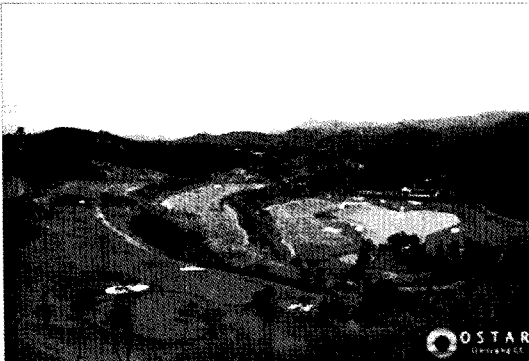
## 업계 동정

한일시멘트 홍성운 회장은 “4년 연속 우승의 일등 공신은 선수들”이라며 “함께 경기를 치른 다른 팀 선수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한편, 연구개발팀 임석규 사우는 감독상, 생산팀 전명구 사우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안았다.



### 현대시멘트(주)

#### 오스타 단양CC 정규 18홀 그랜드 오픈



오스타 단양CC가 9홀 증축공사를 마치고 8월 30일 정규 18홀 명분 퍼블릭 골프장으로 새단장 했다. 기존 9홀 외 추가로 9홀을 증축하여 북코스(기존) 3,241미터(36파, 3,544야드), 남코스(신규) 3,368미터(36파, 3,683야드) 총 18홀 6,609미터(72파, 7,227야드)로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규모다. 석회석 채석장을 활용한 친환경 골프장으로서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분공장 체육대회 개최

지난 6월 15일 현대시멘트 분공장 체육대회가 제천 소재 체육공원에서 개최되었다. 분공장의 영업활성화와 직원간의 화합도모 및 사기진작을 위해 분공

장, 본공장, 본사 약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족구, 풋살,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 영월공장, 방범용 CCTV 영월군에 기부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은 7월 30일, 영월군 관내 치안(범죄예방)을 위해 영월군 서면 신천리(신천교 ⇒ 제천방향)에 방범용 CCTV를 설치, 영월군에 기부하였다.

#### 영월공장,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행사 참여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은 올해에도 지난 6월부터 공장인근지역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박, 토마토, 포도 등)을 구입하는 행사에 참여 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소득증대에 일조하였다. 한편, 이 행사에는 본사 및 분공장등과 계열사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뜻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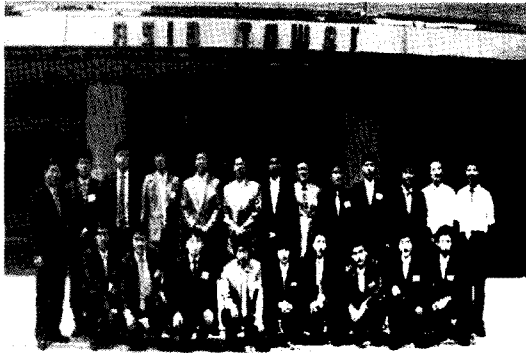


### 아세아시멘트(주)

#### 신입사원 연수교육 실시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신입사원 연수

## 업계동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신입사원 교육은 사외 위탁교육, 업무소개 및 분공장 견학 등으로 진행되었다.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본사, 용인공장, 수원공장을 견학하였고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4박 5일간 일정으로 하남에 위치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9일까지는 생산 현장 및 광산견학 등 재천공장 연수가 이어졌으며 신입사원들은 교육을 수료한 후 7월 10일부터 각 부서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 경주월드리조트 워터파크 캘리포니아비치 오픈기념식

경주월드리조트는 캘리포니아비치 오픈기념식을 지난 7월 17일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아세아그룹 이병무 회장을 비롯한 아세아시멘트 계열사 임직원, 경주시장, 경북개발공사사장, (한)유원시설협



회장 등이 참석하여 캘리포니아비치의 개장을 축하하였다. 조성규모는 1만여평 부지에 동시수용인원 8천여명 규모이다. 캘리포니아비치는 고객들의 성원 아래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되었다.

### 2008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7월 1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08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병무 회장, 이윤무 부회장과 김동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병무 회장은 총평에서 원자재 및 연료비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낙산 휴양소 운영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0일까지 사원들의 여름 휴가를 돕기 위해 하계 휴양소를 운영했다. 하계 휴양소는 강원도 양양 낙산 해수욕장에 위치, 12개실을 설치 운영하였다.

## SUNGSHIN 성신양회(주)

### 2008년 단체협약 타결

지난 7월부터 시작된 2008년 단체협약이 9월 8일 타결되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현재 시멘트 업계가 겪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사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상호간의 신뢰와 안정을 더욱 도모하는 차원의 협약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 2008년 목표달성 Workshop 개최

지난 9월 6일 산은 아카데미에서 당사 임원 및 부, 팀장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목표달성 Workshop'이 개최되었다. 이번 Workshop은 8월 경영실적 보고, 부문별 전략도의 및 발표, 화합의 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히 '부문별 전략도의 및 발표' 시간에는 당사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열의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화합의 시간'에서는 남은 하반기를 통해 경영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한 임직원들의 의지와 각오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번 Workshop을 통하여 김재실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모든 임직원들이 2008년 남은 기간동안 혼을 다한 노력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을 강조하였으며, 더불어 전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노사가 함께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 고려시멘트, 기초소재와 함께 유진기업에 흡수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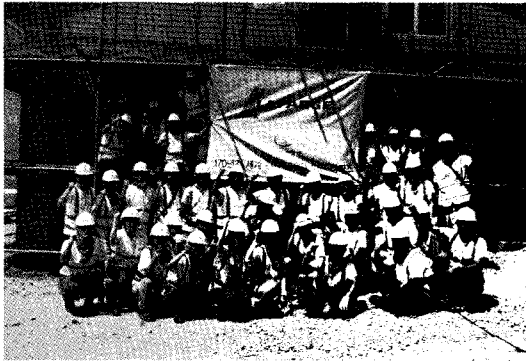
고려시멘트가 기초소재와 함께 8월 1일부로 유진기업에 합병되었다. 유진기업은 지난 5월 15일 이사회에서 3사간 합병을 결의하고,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거쳐, 연 매출액 8,000억원대, 자산 1조 5,000억원대의 통합 유진기업으로 변신에 성공했다. 종전까지 수도권 중심의 23개의 레미콘공장과 아스콘공장 1개를 사업장으로 두었던 유진기업은 합병 이후에는 전국에 33개의 레미콘공장과 3개의 시멘트공장 및 아스콘공장 1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합병의 핵심은 유진그룹내에 소재부문으로 레미콘(유진기업)과 시멘트 회사(고려시멘트, 기초소재)로 각각 운영되는 것을, 중복된 관리·구매 등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있다. 또한 합병을 통해 유진기업은 레미콘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1위에 등극했으며 시멘트업계에서도 국내 2위 규모로 변신하게 됐고, 사업장도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 2008 라파즈 번개건축 - 시멘트 / 석고보드 전량지원과 함께 자원봉사 나서

라파즈한라시멘트와 한국라파즈석고보드 양사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강원도 춘천에서 진행된 2008 라파즈 번개건축에 100여명의 사내의 자원봉사자가 참가하여 소중한 땀방울을 흘렸다. 지난





2000년부터 한해도 빠짐없이 국내 해비타트 건축에 소요되는 시멘트와 석고보드 전량 지원은 물론 임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오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라파즈 번개건축'으로 새롭게 마련하여 국내 대학생, 국내 프랑스 교환학생, 고객 등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다.

### 옥계면/라파즈한라장학재단, 2008년 장학금 수여

라파즈한라시멘트가 출연한 8억원의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옥계면/라파즈한라 장학재단의 2008년 장학금 수여식이 8월 23일 옥계면종합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 총 80명의 지역사회 출신 학생(대학생 44명, 고등학생 3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2003년부터 지역사회 인재육성



을 위해 라파즈한라시멘트가 조성한 장학재단을 통해 지역사회 출신의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 안전의 달 행사 성공적으로 마무리



그룹에서는 2008년 6월을 라파즈 안전의 달(Lafarge Safety Month)로 지정하였고, 라파즈한라시멘트는 한국라파즈석고보드와 공동으로 다양한 안전행사를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전의식을 한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룹의 안전로드맵-고소작업 안전표준(WAH), 개인보호구안전표준(PPE), 이동장비안전(MEA)-을 주지시키는 동시에 직접 체험을 통해 몸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옥계공장에서는 Safety Day, 안전 사생대회, 휠로더 경진대회 등이, 서울사무소에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안전, 비상대피 훈련, 방어안전운전 교육 등의 안전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울산, 여수, 당진에 위치한 석고보드 공장과 연계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안전의 대상을 우리의 직원과 협력업체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가족, 고객,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 듀폰 Safety Leadership 교육 실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설비가



동도 중단하는 라프즈한라시멘트는 86명의 공장장, 팀장, 반장 등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4차례의 튜폰 Safety Leadership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행동에 기초한 안전교육으

로 참가자들의 가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성과 지속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개

라프즈한라시멘트는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남양 1, 2, 3리 주민들을 위해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지역 농산물 중 감자와 옥수수 구입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7월 22일까지 펼쳐 감자 175박스, 옥수수 105접이 판매되었다. 비록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행사였다.

## 시사 용어 해설

### ▶ 피크오일(Peak Oil)

최근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는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차 오일쇼크 때의 실질유가가 배럴당 106달러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것이다. 고유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피크오일(Peak Oil)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피크오일이란 1956년 미국의 지질학자 킹 허버트가 제시한 가설로 미국의 석유 생산이 1970년대 중반에 정점에 이른 뒤 점차 줄어든다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허버트의 전망보다 빠른 1970년에 피크에 도달했다. 세계 피크오일에 대한 주장들은 제각각이다. 누구는 2037년이라고 하고, 누구는 2005년에 이미 도달했다고 한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중요 광물 중 하나인 구리에 대한 과거 주장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1934년에 그 당시의 소비량으로 계속 구리를 사용할 경우 40년 후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1974년에는 구리가 57년 후에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934년에는 불가능했거나 경제성이 없었지만 탐사 및 채굴기술 발달과 소비 효율성 향상 등으로 연장된 것이다. 석유도 마찬가지로 일 수 있다. 기술 발달로 심해나 극한 지역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등 과거 경제성이 없던 유전이 개발되고, 소비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석유의 고갈 시점이 많이 늦춰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석유의 양이 유한하고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피크오일은 시점의 차이일 뿐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우리의 예상보다 피크가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도 석유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대체할 만한 획기적인 에너지원 개발은 당분간 힘들 것이라는 점이 우리가 안고 있는 보다 큰 문제점이다.